

「大唐三藏取經詩話」와 雜劇 「서유기」 비교 연구

－ 三藏法師와 孫行者의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金光永**

<目 次>

1. 서론
2. 본론
 - 1) 「대당삼장취경시화」 중의 인물형상
 - (1) 三藏法師
 - (2) 猴行者
 - 2) 잡극 「서유기」 중의 인물형상
 - (1) 三藏法師
 - (2) 孫行者
3. 결론

1. 서론

「대당삼장취경시화」(이하에서는 「취경시화」로 간칭함)는 南宋¹⁾ 무명씨의 소설 작품으로, 역사적 실존인물인 당나라의 玄奘(602~664) 곧 삼장법사 일행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여 天竺國에서 佛經을 구하여 당나라에 귀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작품은 중국에서는 실전되었다가 1916년에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어 알려졌으며, 상중하 3권 모두 1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장에는 만드

* 본 연구는 2019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

1) 작품의 성립 연대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네 가지 주장이 있다. 곧 晚唐 五代說(李時人, 蔡鏡浩), 北宋說(張錦池), 南宋說(王國維), 元代說(魯迅) 등이 그것이다. 이 중 학계에서 남송설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므로, 여기에서는 남송설을 따른다.

시 詩가 있으므로 詩話라고 불리우며, 중국의 章回小說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²⁾ 「취경시화」에는 중국의 각종 신화와 민간전설 등이 묘사되어 낭만적 색채로 가득하며, 여러 妖魔 등이 등장하여 소위 神魔小說의 추형을 보여준다.

잡극 「서유기」는 元末 明初의 蒙古族 극작가 楊景賢(본명은 楊訥이고, 景賢은 그의 字임. 생졸년대는 불명확함)의 희곡 작품으로 삼장법사 일행이 天竺國으로 西天取經하는 고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잡극의 작가 중 몽고족인 양경현은 모두 18종의 잡극을 지었으나, 지금 전해지는 것은 잡극 「서유기」와 神仙度化劇인 「劉行首」 두 편뿐이다. 잡극 「서유기」는 「취경시화」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실전되었다가 1928년 일본에서 발견되어 비로소 그 모습이 나타났다.

「취경시화」와 잡극 「서유기」는 모두 당나라 시기 실존인물인 현장의 서유고사를 제재로 한 것으로서 후세 명대 吳承恩의 소설 「서유기」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승은의 소설 「서유기」는 「三國志演義」와 「水滸傳」과 마찬가지로 소위 ‘世代累積型’ 작품으로서, 7세기의 실제 인물 玄奘이 900여 년이 지난 16세기에 이르러서야 그간의 여러 문학적 성과를 집대성함으로써 출현할 수 있었다.

먼저 현장의 西遊故事는 『大唐西域記』로 정리되었는데, 이것은 현장의 제자 辨機가 현장의 구술에 의거하여 646년 완성한 地理志이다. 이후 또 다른 두 명의 제자가 스승의 업적을 홍보하고 불교의 영향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비적 종교색채를 가미하여 서유고사를 제재로 작품을 완성하였으니, 곧 『大唐慈恩寺三藏法師傳』이 그것이다. 그러나 『大唐慈恩寺三藏法師傳』은 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현장의 전기이다. 이후 서유고사에는 신화와 민간전설 등이 많이 첨가되었는데, 「취경시화」는 이전의 역사적 史實에서 벗어나 비로소 새롭고 진정한 문학적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취경시화」에는 현장뿐만 아니라 손오공의 前身인 猴行者가 등장하고, 아울러 간략하지만 沙和尚의 전신인 深沙神의 형상도 보이니 후세 一師三徒의 取經團이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원말 명초에 양경현은 잡극 「서유기」에 豬八戒를 취경단에 가입시켜 진정한 취경단을 완성하였다.

2) 노신, 『중국소설사략』, 조관희 역주, 살림출판사, 1998, 273쪽.

본 논문은 서유고사의 발전상에서 후세 소설 「서유기」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취경시화」와 잡극 「서유기」를 비교하여, 잡극 「서유기」가 전체적인 서유고사의 발전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의미가 있게 된 배경을 살피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소설과 희곡의 두 작품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 삼장법사와 손행자의 인물형상을 비교함으로써 잡극 「서유기」 성립의 의미와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이것은 「취경시화」에 저팔계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사오정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경시화」와 잡극 「서유기」를 직접 비교하는 선행연구는 아직 거의 없는 편이다. 국내에서는 朴春迎이 「서유기의 成書過程과 주요 인물형상 연구」³⁾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언급하였고, 중국에서는 田華가 「論西遊記雜劇在西遊題材作品中的地位」⁴⁾에서 「취경시화」와 잡극 「서유기」 중의 인물형상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취경시화」와 잡극 「서유기」 중 삼장법사와 손행자의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이들 두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잡극 「서유기」가 서유고사를 제재로 하는 작품 중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2. 본론

1) 「취경시화」 중의 인물형상

(1) 삼장법사

역사상 실존인물인 삼장법사 玄奘은 기록에 의하면, 당시 불경의 번역상에 오류가 많아 이것을 시정하고자 국가에서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상인들 틈에 끼여 서역으로 향하였고, 17년만에 귀국하여 太宗의 환대를 받았으며, 학식과 인품이 매우 출중했다고 한다.⁵⁾ 그러나 「취경시화」 중 법사는 불경을 구해 오라

3) 박춘영, 「서유기의 성서과정과 주요 인물형상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4) 田華, 「論西遊記雜劇在西遊題材作品中的地位」, 내몽고민족대학, 석사학위논문, 2011.

5) 『舊唐書·方伎傳』,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4391쪽.

는 황제의 勅命을 받아 天竺國으로 향하였으며, 불경을 구한 이후 3년 만에 귀국하여 황제의 환대를 받는다. 「취경시화」에서 취경단의 대표이자 작품의 주인공인 법사는 역사상의 실존인물보다도 더욱 존경받는 인물로 등장하여, 작품 중에서는 법사의 ‘不可思議한 德行’을 칭송한다. 그리하여 법사는 「취경시화」에서 더욱 경건하고 고상하며 덕행이 출중한 승려로 묘사된다. 그러면 먼저 작품 중 여자들만 사는 女人國에서 나타난 법사의 인물형상을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女王이 법사의 詩를 보고서 법사 일행에게 內宮에 들어와 감상토록 하였다. 법사 일행이 안으로 들어가자, 향기로운 꽃이 자리에 가득하고 七寶가 첩첩이 쌓였으며, 양쪽으로 모두 여인들인 것이 보였다. 여인들은 나이가 二八 청춘이었으며, 미모에다가 유연했고, 별같은 눈에 버들잎같은 눈썹, 붉은 입술에 석류같은 치아, 복숭아같은 얼굴에 매미같은 머릿결이었고, 옷은 산뜻하고 말하는 것이 부드러워 세상에는 없는 여인들이었다. 여왕은 법사 일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눈썹을 낮추고 다가섰으며, 앞으로 가까이 와서 인사했다. “스님께 여쭙니다. 이곳은 여인국이라 남편이 없습니다. 오늘 스님 일행이 오시는 것을 보고서, 받들어 여기에 寺院을 지을 것이니, 스님 일행 분께서 여기에 머무르시길 요청드립니다. 또 그러시면 마땅히 저희 나라 여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절에 들어와 향을 피우고, 불경 설법을 들어 善根⁶⁾을 심을 것입니다. 또 남편을 보게된 것은 夙世의 인연입니다. 스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법사가 말하길, “저는 東土(중국)의 중생을 위하고자 왔는데, 또 어떻게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여왕이 말하길, “스님께선 ‘사람은 한 생애 사는 것이지, 두 세상 살지 않는다’는 古人의 말씀 안 들어 보셨나요? 바로 여기에 머무르시어 저를 위하여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것도 매우 風流있는 일이잖아요!” 법사는 거듭 사양하고 마침내 작별인사를 하였다. 이에 양쪽의 여인들은 눈물이 얼굴에 흘렀으며, 눈썹에 근심이 생기며 말했다. “이번에 가시면 언제 다시 남편의 얼굴을 보지요?” 여왕은 마침내 가는데 사용하도록 夜光珠 다섯 알과 白馬 한 필을 법사에게 주었다. 법사 일행은 함장하며 감사드렸다.⁷⁾

6) 좋은 果報를 가져올 선한 행위.

7) 女王見詩, 遂詔法師一行, 入內宮着賞. 僧行入內, 見香花滿座, 七寶層層: 兩行盡是女人, 年方二八, 美貌輕盈, 星眼柳眉, 朱唇榴齒, 桃臉蟬髮, 衣服光鮮, 語話柔和, 世間無此, 一見僧行入來, 滿面含笑, 低眉促黛, 近前相揖: “起咨和尚, 此是女人之國, 都無丈夫, 今日得觀僧行一來, 奉爲此中, 起造寺院, 請師七人, 就此住持. 且緣合國女人, 早起晚來, 入寺燒

위의 인용문은 「취경시화」 중 제10장에 해당되는 '經過女人國處'부분으로서, 작품의 주인공인 삼장법사가 여인국에서 여왕에게 성적 유혹이란 시험을 당하지만, 법사는 이에 넘어가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법사의 금욕주의적 경건함과 德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와 같이 법사를 色慾으로 유혹하는 장면은 잡극 「서유기」 제17齣「女王逼配」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100회본 소설 「서유기」 제54회에도 이러한 장면이 보이고 있으니, 「취경시화」 중의 고사가 후세 서유고사 작품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여왕의 여러 회유에도 불구하고 법사가 단호히 거부하고 작별인사를 건네자, 여왕은 법사 일해에게 夜光珠 다섯 알과 白馬 한 필을 주면서 앞으로 가는 길에 사용하도록 준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白馬는 잡극 「서유기」 중의 白馬와 소설 「서유기」 중 龍馬의 雛形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여왕은 법사를 유혹하기 위하여 상당히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한다. 곧 먼저 여왕은 법사가 자신의 건의를 받아들여 여인국에 머무르는 것은 여인국의 여인들에게 善根을 심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불교에서 善根을 심는 功德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여왕은 법사에게 선근이란 고상한 핑계로써 유혹하였다. 그리고 위에 의하면, 여인국의 여인들이 법사 일행을 남편으로 맞게 된 것은 夙世의 인연이므로 피할 수 없다는 논리로 여왕은 법사를 유혹하였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이 법사는 자신이 東土, 곧 중국의 중생을 위해서 불경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면서 여왕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취경시화」 중 법사의 '불가사의한 德行'은 법사가 불경을 얻기 위해 도달한 천축국에서 보여진다. 법사는 천축국의 福仙寺에 도착하여 불경을 얻고자 했지만 쉽지 않자, 일행들과 함께 경건하고 진지하게 불경을 얻기 위해 부처가 있는 鷄足山을 향해 기도를 한다. 그리고 법사의 간절한 기도에 복선사의 모든 승려들은 탄

香, 聞經聽法, 種植善根; 又且得見丈夫, 夙世因緣, 不知和尚意旨如何?"法師曰:"我爲東土衆生, 又怎得此中住院?"女王曰:"和尚師兄, 豈不聞古人說:'人過一生, 不過兩世'便只住此中, 爲我作個國主, 也甚好一段風流事!"和尚再三不肯, 遂乃辭行. 兩伴女人, 淚珠流臉, 眉黛愁生, 乃相謂言:"此去何時再觀丈夫之面?"女王遂取夜明珠五顆, 白馬一疋, 贈與和尚前去使用. 僧行合掌稱謝. 李時人 蔡鏡浩校注, 「大唐三藏取經詩話校注」, 中華書局, 1997. 28쪽.

복을 하고, 이후 천둥이 치고 한 줄기 불빛이 비치더니 일순간 불경이 법사 앞에 놓여졌다. 이에 복선사의 승려들은 법사의 '불가사의한 덕행'에 탄복한다.

그런데 「취경시화」 중 위에서와 같이 경건하고 고상하여 출중한 덕행을 지닌 법사의 형상은 작품 중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부정적 형상으로 나타난다. 곧 법사는 승려로서 修行이 부족하고 德行을 지니고 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취경시화」 중에 나타난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후행자가 말했다. “사부님 앞으로 50리만 가시면 곧 西王母 연못입니다.” 법사가 말했다. “너는 온 적이 있느냐?” 후행자가 말했다. “제가 800살 때 여기에 와서 복숭아를 훔쳐 먹었습니다. 지금은 27,000 살인데 그 후로는 안 왔습니다.” 법사가 말했다. “오늘 반도(蟠桃)⁸⁾가 열매를 맺었다니, 서너 개 정도 훔쳐 먹고 싶구나.” 후행자가 말했다. “제가 팔백 살이었을 때 열 개를 훔쳐 먹었다가 서왕모에게 잡혀 쇠몽둥이로 왼쪽 옆구리 팔백 대, 오른쪽 옆구리 삼천 대를 맞는 벌을 받고 花果山 紫雲洞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옆구리 아래가 아직도 아프니, 저는 이제 감히 훔쳐 먹지 못하겠습니다.”⁹⁾

위의 인용문은 「취경시화」 제11장의 ‘入王母池之處’로서 법사 일행이 서왕모의 연못에 도착하여 발생한 고사이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손오공의 전신인 후행자는 팔백 살 때 이곳에 들러 蟠桃 복숭아 열 개를 훔쳐 먹다가 서왕모에게 걸려 쇠몽둥이로 벌을 받고 화과산에 유배당하였다. 오승은의 「서유기」에서 가장 관건적인 부분이 손오공이 반도를 훔치는 등 天宮에서 난동을 피우는 것임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大鬧天宮’내용의 雛形이 이미 「취경시화」 중의 이 부분에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법사의 행동은 앞에서 살펴본 경건하고 덕행이

8) 3,000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는 전설상의 복숭아.

9) 猴行者曰：“我師且行，前去五十裏地，乃是西王母池。”法師曰：“汝曾到否？”行者曰：“我八百歲時，到此中偷桃吃了；至今二萬七千歲，不曾來也”法師曰：“願今日蟠桃結實，可偷三五個吃。”猴行者曰：“我因八百歲時，偷吃十顆，被王母捉下，左肋判八百，右肋判三千鐵棒，配在花果山紫雲洞。至今肋下尚痛，我今定是不敢偷吃也。”李時人 蔡鏡浩 校注，「大唐三藏取經詩話校注」，中華書局，1997，31쪽.

출중한 승려의 모습과는 전혀 같지 않다. 법사는 서왕모의 瑤池에서 자라나는 반도 복숭아를 보고 후행자에게 훔쳐 오라고 시킨다. 물론 반도 복숭아를 먹으면 長生할 수 있다는 세속적 욕심 때문일 것이다. 불교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곧 偷盜는 五戒 중의 하나로서, 반도를 훔치는 것은 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취경시화」 중 나타난 법사의 형상에 경건함과 세속성이 함께 어우러져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경시화」 중 법사의 이러한 형상은 제4장인 '入香山寺'에서도 나타난다. 곧 법사는 향산사에 도착하여 寺門의 좌우 양쪽에 있는 金剛力士의 무서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며 '온몸에 땀을 흘리고, 숨털이 곤게 일어나는' 형상을 보여준다. 금강역사는 본시 모든 사찰의 사문 양쪽에서 사찰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때문에 법사가 이미 익숙할 것인데, 여기에서 도리어 매우 공포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승려의 모습보다는 세속적인 市井 俗人の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취경시화」 중에 경건함과 세속성이 함께 나타난 이율배반적인 법사의 형상은 어떠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법사의 세속적인 형상은 아무래도 남송 당시 불교의 세속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불교는 당나라 六祖 惠能 이후 세속화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만당 오대 이후 중국 불교는 커다란 시련을 겪어, 왕권에 잘 타협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을 특별히 중시하였다.¹⁰⁾ 「취경시화」는 바로 이렇게 불교가 날로 세속화할 때 탄생하여 그 영향을 벗어나기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취경시화」의 문학 장르적 성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취경시화」는 본시 당나라 시기 승려들이 일반 대중의 居士들에게 불경의 내용을 전하는 俗講을 계승한 說經類의 작품이다. 설경은 물론 佛法 선양과 불교 教義 선전을 중점으로 삼지만, 일반 대중들인 청중들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종교 교화에 오락성을 첨가시켰다. 곧 설경은 원래의 종교 선전물 바탕 위에 문예 오락물적인 성격을 함께

10) 朱萍, 李暢, 「大唐三藏取經詩話中法師形像變異及原因分析」, 『淮海工學院學報』, 14卷 7期, 2016년 7월.

가미해서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해야 했다. 이러한 점은 지금 전해지는 전문적 설경 藝人의 이름이 13명이나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 전해지는 송원 시기 說經類 市井小說이 「취경시화」와 「化燈轎蓮女成佛」 두 편뿐이라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이들 설경류 소설이 매우 적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대개 이러한 작품들이 종교 선전에 치중하여 예술성이 강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문학적 생명력이 결핍된 것과 연관이 있으며, 또한 어떤 작품은 후세의 寶卷에 합해져 그 고사가 보권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¹¹⁾

(2) 猴行者

「취경시화」에는 손오공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후행자가 서유고사를 제재로 하는 작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후행자는 「취경시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취경시화」 중의 후행자는 이후의 손오공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인물형상을 하고 있다. 그는 작품 중에서 文質彬彬한 白衣秀才의 형상으로 출현한다. 그러면 원문을 중심으로 후행자의 인물형상을 살펴보자.

스님 일행 여섯 사람은 그날 길을 떠났다. 법사가 말했다. “오늘 西天으로 떠나는데 갈 길이 백만 리이다. 각기 근신해라” 수행 승려들이 응답했다. 한 나라를 가는 길에 우연히 어느 날 午時에 흰옷을 입은 秀才를 만났는데, 그는 正東 쪽에서 와서 곧 스님께 절하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요? 설마 다시 서방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시는 건 아닐테지요?” 법사가 함장하며 말했다. “소승은 勅命을 받자와 동쪽 땅의 중생들이 아직 불교의 가르침을 얻지 못했기에 불경을 가지러 갑니다” 수재가 말했다. “스님께선 생전에 두 번이나 불경을 가지러 가시다 가 중도에 재난을 만났으니, 만약 이번에도 떠나신다면 반드시 목숨을 잃게 되실 것입니다.” 법사가 말했다. “그대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오?” 수재가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花果山 紫雲洞에서 銅으로 된 머리와 鐵로 된 이마를 가진 팔만 사천 獼猴 중의 王입니다. 저는 오늘 스님께서 불경을 가지러 가는 것을 도우러 왔습니다만, 이곳으로부터 백만

11) 蕭相愷著, 『宋元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7, 153쪽.

리 길을 가자면 36개의 나라를 지나야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법사가 대답했다. “만일 그러하다면 三世¹²⁾의 인연이 있는 것이니, 동쪽 땅의 중생들은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오.” 그리고는 당장 그를 후행자라고 바꿔 불렀다.¹³⁾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후행자는 법사가 생전에 불경을 구하러 천축에 가는 길에 두 번이나 재난을 당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법사의 西天取經을 도왔다. 이것은 후세의 서유고사에서 손오공이 삼장법사에게 빚진 救援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경단에 참여한 것과는 다르다. 후행자는 위의 인용문에서 두 가지의 인물형상을 함께 겸비하고 있다. 그는 ‘銅頭鐵額’을 한 미후왕의 신분인 동시에, 또한 작품 중에서 곧잘 詩를 짓는¹⁴⁾ 인자한 백의수재이다. 곧 후행자는 원숭이와 秀才의 형상을 함께 취하고 있으니, 무명씨의 元 잡극 「猿聽經」에서 주인공이 수재와 원숭이로 변신하면서 고사가 진행된 것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다.

후행자는 이와 같이 인건과 원숭이의 두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취경시화」 중에서 그는 殺生을 하지 않는 자애로운 백의수재인 동시에, 또한 法術을 부리는 등 神通力을 보여주면서 법사의 서천취경 도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난을 해결해 준다. 그러면 작품 중의 원문을 중심으로 후행자가神通력을 발휘하는 영웅적 모습을 살펴보자.

후행자가 몇 리를 가서 물어보니 人家가 하나 나타났다. 고깃배가 나무에 매여 있고, 문에는 도롱이가 걸려 있었다. 그런데 小行者는 집주인에게

12) 前世, 現世, 來世.

13) 僧行六人, 當日起行, 法師語曰: “今往西天, 程途百萬, 各人謹慎。” 小師應諾, 行經一國已來, 偶於一日午時, 見一白衣秀才從正東而來, 便揖和尚: “萬福, 萬福! 和尚今往何處? 莫不是再往西天取經否?” 法師合掌曰: “貧僧奉敕, 爲東土衆生未有佛教, 是取經也。” 秀才曰: “和尚生前兩廻去取經, 中路遭難, 此廻若去, 千死萬死。” 法師雲: “你如何得知?” 秀才曰: “我不是別人, 我是花果山紫雲洞八萬四千銅頭鐵額彌猴王, 我今來助和尚取經, 此去百萬程途, 經過三十六國, 多有禍難之處。” 法師應曰: “果得如此, 三世有緣, 東土衆生, 獲大利益。” 當便改呼爲猴行者. 李時人 蔡鏡浩 校注, 「大唐三藏取經詩話校注」, 中華書局, 1997, 31쪽.

14) 시를 짓는 원숭이는 고대 인도의 유명한 서사시 「라마야나」에 나오는 원숭이 하누만의 형상과 똑같이 서유고사의 손오공이 인도의 하누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毛小雨, 「雜劇西遊記研究」, 『雲南藝術學院學報』, 2004.

法術을 당하여 나귀로 변해서 대청 앞에 매달려 있었다. 나귀는 후행자가 오는 것을 보고 크게 울부짖자, 후행자가 주인에게 물었다. “저희 소행자가 야채 사러 갔는데 어디로 갔지요?” 주인이 말했다. “오늘 아침 소행자가 여기에 왔다가 제 法術에 걸려 나귀로 변해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후행자가 그 자리에서 화를 냈다. 그리고 후행자는 나이가 二八 청춘이고 미모가 뛰어나며 행동이 단아하여 西施도 못따라올 주인의 아내에 법술을 부려 한 묶음 靑草로 변화시켜 나귀 입 옆에 놓았다. 주인이 말했다. “제 아내는 어디에 갔나요?” 후행자가 말했다. “나귀 입 옆의 靑草 한 묶음이 당신 부인이요.” 주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도 邪法(魔法)을 하실 줄 아나요? 저는 이런 법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師兄, 제 아내를 돌려주세요.” 후행자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 소행자를 돌려주세요.” 주인이 물 한 모금을 품어대자 나귀가 곧 소행자로 변하였다. 후행자도 물 한 모금을 품어대자 靑草가 부인으로 변하였다. 후행자가 말했다. “지금 우리 일행 일곱 명이 이곳을 지나노니 함부로 妖法을 부려서는 안 된다. 만일 妖術을 부린다면 너희 집안 사람들을 모두 없애 버리겠다.” 주인이 앞으로 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제가 어찌 감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전전공공하였다.¹⁵⁾

위의 인용문은 「취경시화」 제5장인 ‘過獅子林及樹人國’ 부분으로, 樹人國에서 발생한 이야기이다. 「취경시화」에는 법사가 서천취경 하는 도중 세 번의 재난이 닥쳐오는데, 이 부분은 그 중의 첫 번째 재난 부분이다. 후행자는 「취경시화」에 나타나는 재난 세 가지를 모두 적극적으로 영웅적으로 해결하는데, 이러한 점은 잡극 「서유기」 중의 여섯 가지 재난, 소설 「서유기」 중의 81 재난에 비하면 간소한 편이지만 후행자의 영웅적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법사 일행은 수인국에서 소행자 한 명이 야채를 사러 나갔다가 수인국 집주인의 법술에

15) 猴行者一去數裏借問，見有一人家，魚舟系樹，門掛蓑衣。然小行者被他作法，變作一個驢兒，吊在廳前。驢兒見猴行者來，非常叫噉。猴行者便問主人：“我小行者買菜，從何去也？”主人曰：“今早有小行者到此，被我變作驢兒，見在此中”猴行者當下怒發，卻將主人家新婦，年方二八，美兒過人，行動輕盈，西施難比，被猴行者作法，化此新婦作一束靑草，放在驢子口伴。主人曰：“我新婦何處去也？”猴行者曰：“驢子口邊靑草一束，便是你家新婦”主人曰：“然你也會邪法？我將爲無人會使此法。今告師兄，放還我家新婦”猴行者曰：“你且放還我小行者”主人噴水一口，驢子便成行者。猴行者噴水一口，靑草化成新婦。猴行者曰：“我即今有僧行七人，從此經過，不得妄有妖法。如敢故使妖術，須教你一門割(割)草除根”主人近前拜謝：“豈敢有違”戰戰兢兢。李時人 蔡鏡浩 校注，「大唐三藏取經詩話校注」，中華書局，1997，13쪽.

걸려 나귀로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후행자는 소행자를 구하기 위해 집주인의 부인을 나귀 먹이인 靑草로 변화시켜 나귀의 입 옆에 두었다. 이에 깜짝 놀란 집주인이 소행자를 풀어 주었고, 후행자도 집주인의 부인을 법술에서 풀어 주었다. 곧 여기에서 후행자는 집주인보다 더 뛰어난 법술을 보임으로써 재난을 해결하였다.

「취경시화」에서 후행자의 영웅적 형상은 法術 등과 같은 神通力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神通력은 제2장인 ‘入大梵天王宮’에서 후행자가 법술을 부려 법사 일행 여섯 명을 天宮의 연회에 참석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사 일행 여섯 명은 후행자의 법술 덕분에 천궁에 오르게 된다. 제6장 ‘過長坑大蛇嶺處’에서 妖精인 白虎精을 만나 겪게 되는 두 번째 재난은 후행자의 또 다른神通력을 보여준다. 후행자는 백호정을 항복시키기 위하여 수 천 수 만의 獼猴로 변신시키는데, 이러한 分身法을 활용하는神通력은 오승은의 소설 「서유기」에 나타나는 것과 제법 비슷하다. 또한 제7장 ‘入九龍池處’에서 법사 일행은 세 번째 재난을 만나는데, 후행자는 虺頭鼉龍(규두타룡)과 싸우면서 자신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陳法 등과 같은 특이한神通력을 발휘하여 재난을 해결하였다.

이상과 같이 「취경시화」에서 후행자는 법사일행의 재난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 다만 후행자는 결코 재난의 극복 과정에서 殺生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후의 잡극 「서유기」나 소설 「서유기」에서와 같이 손오공이 수많은 요괴를 죽여 피비린내 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는 다른 형상이다. 이러한 후행자의 모습은 「취경시화」가 아직 종교색채를 강하게 지니는 작품이기 때문에, 불교의 계율 중 제일 중요한 殺生을 피하고자 하는 작자의 의도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잡극 「서유기」 중의 인물형상

(1) 삼장법사

잡극 「서유기」는 서유고사를 제재로 하는 문학 작품의 발전 과정 중 핵심적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 앞의 「취경시화」가 후세 소설 「서유기」의 雛形

이라고 말한다면, 잡극 「서유기」는 소설 「서유기」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잡극 「서유기」에 이르러 취경단이 분명하게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극 중 희극성이 풍부한 예술 풍격 또한 「취경시화」와는 다른 모습으로 후세 소설 「서유기」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잡극 「서유기」 중 법사의 형상 또한 「취경시화」 중의 법사 형상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먼저 원문을 중심으로 법사의 인물형상을 살펴보자.

(龍王 등장): 밤새 觀音菩薩님의 명령이다: “毘盧伽尊者께서 금일 재난이 있으니, 夜叉에게 분부하여 강가의 水神들이 단단히 지키도록 하라.”
(퇴장)

(부인이 애를 안고 등장): 도적놈에게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애를 낳아 오늘 한 달이 되었네요. 도적놈이 애를 강에 버리라고 강요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저까지 죽인다고 하네요. 제가 죽는다면 누가 제 남편을 위해 복수해줄까요? 하는 수 없이 따라야지요. 애야!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노래한다)……

【醉春風】 애끓는 심정으로 백 원짜리 紙錢을 태우고/ 이별의 한으로 술 석 잔을 따르는데/ 도도한 강물에 물보라 일어나네/ 陳光蕊여! 당신의 魂靈은 있는가? 있는가? 저에게 큰 화장상자 있으니, 아이를 그 속에 넣어야지. 두 세 개 나무 조각을 댓개비로 묶으면 떠내려갈 수 있겠지.

화장상자에 넣어서/ 물가에 버리네/ 陳光蕊여! 그 강에서 기다리세요. 16)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잡극 「서유기」 중의 법사 형상은 앞에서 살펴본 「취경시화」 중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곧 위의 인용문에서 잡극 「서유기」 중의 법사 형상은 神話화된 출생 내력인 江流故事를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법사는 전생에 毘盧伽尊者였다. 비로가존지는 본시 불교에서 修行과 功德

16) (龍王上, 云)夜來觀音法旨云: 毗盧伽尊者今日有難, 分付巡海夜叉, 沿江水神, 緊緊的防護者. (下)(夫人抱孩兒上, 云)自從被賊徒壞了男兒, 我得了个孩兒, 今朝滿月, 賊漢逼臨我拋在江裏. 待不依來, 和我也要殺壞. 我死了呵, 誰與我男兒報讐? 則索依着他. 兒呵, 也是我出于無奈. (唱)…… 【醉春風】 燒一陌斷腸錢, 酌三杯離恨酒. 滔滔雪浪大江中, 陳光蕊呵, 你魂靈兒敢有、有! 我有一個大梳匣, 將孩兒安在裏面, 將兩三根木頭兒, 將蔑子縛着, 可以浮將去. 匣子裏安藏, 水波邊拋棄, 陳光蕊呵, 你在那浪花中等候. 隋樹森編, 『元曲選外編』第2冊, 中華書局, 1987, 637-639쪽.

이 매우 뛰어난 羅漢으로 부처의 제자이니, 법사의 극 중 신분이 매우 높게 안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극 중 법사의 출생 내력은 매우 특이하다. 법사의 어머니는 강도에게 남편을 잃고 나서 법사를 출산했지만, 강도의 강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사를 강물에 버렸으니, 소위 江流故事가 법사의 핵심적 출생 내력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위의 인용문에서 법사의 어머니는 극 중의 노래를 통하여 자신이 법사를 강물에 버려야만 하는 처절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강류고사는 중국에서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伊尹의 출생신화이며¹⁷⁾, 잡극 「서유기」의 작자 楊景賢은 이러한 강류고사를 통하여 법사를 더욱 신화화시키고 영웅화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양경현은 이러한 강류고사를 서유고사와 처음으로 결합하여 잡극 「서유기」를 완성하였으며, 후세 오승은의 소설 「서유기」에도 이러한 신화화된 법사의 강류고사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러한 점은 서유고사의 발전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잡극 「서유기」 중의 법사는 신화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취경시화」 중의 법사에 비하여 훨씬 영웅화된 형상으로 나타난다. 법사는 자신을 길러준 丹霞禪師로부터 자신의 출생 내력을 전해 듣고,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강도를 찾아 철저한 복수를 하고, 이후 서천취경의 장도에 나선다. 그런데 이때 극 중 천자의 명령으로 당나라 시기 房賢齡 등 조정의 유명한 개국공신들과 百官들이 모두 출현하여 그에게 송별식을 해주고, 아울러 법사는 天子로부터 金色 袈裟와 九環 錫杖을 하사받는데, 이러한 장면은 법사의 영웅적 기개와 장엄한 풍격을 보여준다.

그러나 잡극 「서유기」 중 법사의 신화화되고 영웅화된 인물형상은 이후에는 도리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취경시화」 중 경건하고 덕행이 출중한 승려인 법사가 후행자에게 반도 도둑질을 시키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잡극 「서유기」 중의 법사는 「취경시화」 중의 법사에 비하여 훨씬 희극성을 지닌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취경시화」에는 전반적으로 종교적 색채가 충만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잡극 「서유기」에는 전반적으로 극 중에 희극적 색채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면 원문을 중심으로 법사의 또다른 인물형상을 살

17) 王振星, 「唐僧江流兒身世的原型與流變」, 『南通大學學報』, 23卷, 2期, 2007.

펴보자.

(老張이 등장): …… 저는 대대로 長安城 밖에 거주하는 성실한 농민입니다. 오늘 듣자하니, 장안 성 안에서 國師인 唐三藏께서 西天取經하러 가시는 것을 환송한다고 합니다. 저희 마을의 莊王二와 胖姑兒가 모두 갔습니다. …… 그들이 돌아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해야지요. ……

(老張): 胖姑兒! 당신이 총명하지요. 말해주세요. (胖姑兒 노래한다)

【一縞兒麻】胖姑兒가 유난히 총명하지는 않아요/ 관리들이 떼지어 큰 절구공이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절구공이에는 하늘에서 내준 눈과 눈썹이 달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표주박이고 호롱박이네요/ 그 사람 정말 기괴하게 생겼어요/ 무슨 놈의 唐僧, 唐僧이예요/ 다행히 어르신과 안가길 다행이지요./헛수고 했을 뻔했으니까요/ 정말 차마 입에 꺼내기 힘든 것(남성 생식기)같이 생겼어요/ 괜히 옆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네요/18)

위의 인용문은 제6齣 ‘村姑演說’로서, 법사를 위한 성대하고 장엄한 환송식을 시골 村婦인 胖姑兒의 시각을 통해서 해학화시키고 조롱하는 插科打諢 부분이다. 극 중에서 장안성 교외의 촌부인 반고이는 자신의 노래를 통하여 법사의 형상을 매우 해학적으로 묘사하여 저절로 웃음을 짓게 만든다. 위의 인용문에서, 잡극 「서유기」의 작자는 시골 촌부의 입을 통하여 고의로 喜劇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조롱의 수법을 사용한다. 곧 반고이는 법사의 형상이 매우 기괴하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승려인 법사의 얼굴을 ‘절구공이’ ‘표주박’ ‘호롱박’ ‘남성 생식기’에 비유하며 조롱한다.

잡극 「서유기」에서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법사의 高僧 형상과는 이울배반적인 무능하고 식별력이 부족한 凡僧의 모습은 극 중 법사 일행에게 재난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종종 나타난다. 법사는 잡극 「서유기」 제12척 ‘鬼母皈依’에서 妖怪인 紅孩兒가 자신들의 일행 앞에 나타났을 때 요괴인줄 모르고 호의를 베풀다가, 도리

18) (老張上, 云) …… 老張祖在長安城外住, 生是個老實的傍城莊家. 今日聽得城裏送國師唐三藏西天取經去, 我莊上莊王二、胖姑兒都看去了, 等他們來家, 教他敷演與我聽, …… (張云)胖姑兒, 則有你心精細, 你說者. (姑唱) 【一縞兒麻】不是胖姑兒偏精細, 官人每簇捧着個大樞椎. 樞椎上天生得有眼共眉, 我則道瓠子頭葫蘆對, 這個人也索是蹺蹺, 甚麼唐僧, 唐僧, 早是不和爺爺去看哩, 枉了這遭. 恰便似不敢道的東西, 枉惹得傍人笑耻. 隋樹森編, 『元曲選外編』第2冊, 中華書局, 1987, 648쪽.

어 홍해아에게 납치되는 재난을 당하며, 결국에는 극 중의 조력자인 觀音菩薩의 도움을 통해서야 구조된다. 또 제17척 '女王逼配'에서 법사는 女人國 여왕이 부부가 되자며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性的인 시련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손오공에게 구해주라고 요청하며, 결국에는 佛法의 護法神인 韋馱尊天의 도움으로 간신히 시련에서 벗어난다. 법사의 이러한 재난과 시련은 모두 법사의 무능과 식별력 부족에서 야기된 것으로, 극 중 법사의 이러한 형상은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형상과는 강렬한 대비를 이루어 강한 희극성을 불러일으킨다.

(2) 孫行者

잡극 「서유기」와 「취경시화」의 인물형상 변화를 비교할 때 제일 큰 변화를 보이는 인물은 단연 손행자 곧 손오공이다. 잡극 「서유기」 중의 손행자는 「취경시화」 중의 후행자와 같은 백의수재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자유를 추구하고 반항정신을 지니며 요괴를 제거하는 강한 전투정신을 소유하는 영웅적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원문을 중심으로 잡극 「서유기」에 나타난 손행자의 인물형상을 살펴보자.

(손오공 등장): 천지가 개벽한 이래/ 천지 간에 내 몸이 있네./ 일찍이 온 세상 골치 아프게 만들었고./ 사망의 神들도 내가 무섭다고 말하네./ 五岳의 鬼兵들도 화를 내고/ 천지 사망을 혼란에 빠뜨리네./ 위세는 북두 칠성과도 구분하기 힘드나니/ 팔방 세계에 어느 누가 우두머리인가?/ 넓고 넓은 하늘도 나를 잡기 힘드나니/ 십만 악마들의 君王이네./ 저에게는 형제자매가 다섯입니다. 큰 누나는 驪山老母, 둘째 누나는 巫枝祇聖母, 큰 형은 齊天大聖, 저는 通天大聖, 남동생은 耍耍三郎입니다. 저는 기쁜 때면 산의 등나무와 칩나무를 올라타고, 화날 때면 바다와 강물을 뒤집어 버립니다. 또 金鼎國의 여자를 약탈해와 제 아내로 삼았고, 玉皇殿의 맛있는 술을 훔쳐 먹었습니다. 저는 또 太上老君께서 만드신 金丹을 훔쳤습니다. 저는 아홉 번 정련된 구리와 철로 근육과 뼈를 하고 있고, 눈은 불과 같고 눈동자는 금과 같습니다. 똥구멍은 黃銅으로 되어 있고, 생식기는 朱錫에 수은을 합성시켜 만들었습니다. 저는 西王母의 仙桃 백 개를 훔쳤고, 훔친 신선 옷 한 벌은 아내에게 입으라고 주었습니다.¹⁹⁾

위의 인용문은 제9척「神佛降孫」시작 부분으로 극 중의 실질적 주인공 손오공이 등장하여 자신을 소개하며 읊은 上場詩 부분인데, 손오공의 몇 가지 핵심적 형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첫째, 위에 의하면 손오공은 '바다와 강물을 뒤집어 버리는' 등 자유자재하고 무소불능하여 팔방 사계의 우두머리로 자처한다. 그리하여 극 중에서 손오공은 이러한 무소불능의 능력인神通력을 발휘하여 법사 일행에게 닥친 재난과 시련을 해결하였다. 비록 「취경시화」의 후행자도 영웅적 형상을 보여주었으나, 잡극 「서유기」 중의 손오공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일례로 「취경시화」에서 후행자는 서왕모의 반도를 훔쳐 먹었다가 잡혀서 철몽둥이로 맞았지만, 잡극 「서유기」의 손오공은 더 많은 것을 훔쳐 먹었지만 李天王 등의 백만 天兵으로도 손오공을 잡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취경시화」의 주인공이 법사였지만, 잡극 「서유기」의 주인공은 이미 손오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후세 오승은 「서유기」 중의 손오공 인물형상 형성에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였다. 둘째, 위에 의하면, 그러한 손오공도 세속 세계의 五慾七情을 지니고 있으니, 금정국의 여자를 약탈하여 아내로 삼고, 또한 네 명의 형제자매를 두고 있다. 극 중에는 손오공이 지닌 이러한 세속성으로 인하여 「취경시화」 중의 후행자와는 전혀 다른 희극성을 조성하여 잡극 「서유기」에 희극색채가 충만하도록 만든다. 셋째, 또한 손오공은 위의 인용문에서 천상의 권위와 질서에 반항하는 강한 반항정신을 보여 주고 있으니, 그는 玉皇殿의 맛있는 술을 훔쳐 먹고, 아울러 태상노군이 만든 仙藥인 金丹을 훔쳤다. 손오공의 이러한 반항정신은 바로 후세 오승은 「서유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大鬧天宮'에 큰 영향을 끼쳤다.

손오공은 잡극 「서유기」 전체 24척 중 제9척에서 비로소 등장하지만, 이후의 극정 전개에서 재난과 시련을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일례로 제11척 '行者除妖'에서는 劉太公의 딸을 약탈해간 요괴인 銀額將軍을 죽이고 딸을 돌려주

19) 一自開天辟地，兩儀便有吾身，曾教三界費精神，四方神道怕，五岳鬼兵噴，六合乾坤混擾，七冥北斗難分，八方世界有誰尊，九天難捕我，十萬總魔君，小聖弟兄，姊妹五人，大姊驢山老母，二妹巫枝祇聖母，大兄齊天大聖，小聖通天大聖，三弟耍耍三郎，喜時攀藤攬葛，怒時攪海翻江，金鼎國女子我爲妻，玉皇殿瓊漿咱得飲，我盜了太上老君煉就金丹，九轉煉得銅筋鐵骨，火眼金睛，我偷得王母仙桃百顆，仙衣一套，與夫人穿着，隋樹森編，『元曲選外編』第2冊，中華書局，1987，654쪽.

고, 제15척 '導女還襄'에서는 저팔계에 잡혀간 襄太公의 딸을 찾아서 데려다 준다. 또 제19척 '鐵扇凶威'에서는 火焰山을 통과하기 위해 鐵扇公主와 전투를 하면서도 이윽려 작품에 해학성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插科打諢을 사용하면서 서천취경을 진행한다.

그러나 잡극 「서유기」에서 손오공은 「취경시화」 중의 후행자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10척 '收孫演呪'에서 손오공은 법사가 그를 火焰山에서 구원해 주었지만 도리어 법사를 먹으려 한다. 물론 손오공의 이러한 점은 그에게 잠복해 있던 妖怪性이 일순간 출현한 것이다. 또한 손오공은 제19척 '鐵扇凶威'에서 화염산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鐵扇을 철선공주에게 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에 해당되는 무례하고 비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철선공주를 화나게 만든다.²⁰⁾ 그리고 제21척 '貧婆心印'에서 손오공은 佛法의 이치를 깊게 터득한 貧婆와의 대화에서 불교의 教義를 조롱하는데, 이러한 점은 경건한 불교색채가 충만한 「취경시화」에서는 전혀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러면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손오공): 당신은 내가 『金剛經』을 모른다고 말하세요? 저도 사부님께 서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구절을 읽던 것을 늘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당신 저에게 胡餅이나 백 文어치 팔아요. 제가 마음에 점을 찍고서 당신과 서서히 『金剛經』을 이야기 하죠.

(빈파): 이 놈의 원숭이가 내 앞에서 번지르한 말을 뽐내고 있네. 네가 마음에 점을 찍겠다는 것은 너의 과거심에다 찍니, 현재심에다 찍니, 미래심에다 찍니?

(손오공): 이 노인네 대단하네.

(빈파): 마음은 본성의 본체이고, 본성은 마음의 작용이다. 혹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하니, 다만 움직인지 움직이지 않은지 불뿐이다. 너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너는 마음이 있니 없니?

(손오공): 저는 본래 마음이 있었는데, 똥구멍이 커서 떨어져 버렸소.²¹⁾

20) "제 것은 알지 않고, 아가씨 것은 깊지 않으니, 나와 당신 모두 자기 물건을 내서, 한 쌍의 요정이 되어 보세."(弟子不淺, 娘子不深, 我與爾大家各出一件, 湊成一對妖精)

위의 인용문에서 손오공과 천축국의 빈파가 나는 대화는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金剛經』에 나오는 내용을 둘러싸고 나는 대화이다. 여기에 나오는 『金剛經』의 ‘過去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이란 구절은 당나라 시기 禪僧인 德山大師와 호떡 파는 여인과의 대화로 유명한 것으로서, ‘點心’이란 단어의 어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손오공은 위에서 불교 경전에 대한 지식이 매우 높은 천축국 빈파와의 대화 중에서 자신이 『金剛經』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는 척 하고 있으며, 『金剛經』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빈파의 물음에 ‘본래 마음이 있었는데 똥구멍이 넓어서 떨어져 버렸다’는 挿科打諢으로써 대답함으로써 불교 교의에 대한 조롱을 하고 있다. 잡극 「서유기」 중 손오공의 이와 같은 挿科打諢은 「취경시화」 중 문질빈빈한 모습의 후행자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으로, 극의 희극성을 제고시키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상까지 살펴본 잡극 「서유기」 중 법사와 손오공의 인물형상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먼저 강류고사를 통하여 신화화 되었으면서도 아울러 평범한 凡僧으로 묘사된 법사의 인물형상은 후세 오승은의 소설 「서유기」 중 법사의 인물형상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엄청난 신통력과 강렬한 세속성 및 특유의 반항정신을 지닌 손오공의 형상 또한 오승은의 소설 「서유기」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곧 잡극 「서유기」 중 법사와 손오공의 인물형상은 「취경시화」 중의 형상을 계승하여, 오승은의 「서유기」를 성립시키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예술 풍격의 측면에서 볼 때 잡극 「서유기」 중의 법사와 손오공은 희극성을 풍부하게 지녀 오승은 소설 「서유기」가 희극성이 충분한 작품으로 이루어지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일례로 소설 「서유기」에 나타난 神佛들에 대한 풍자는 기본적으로 잡극 「서유기」를 계승하고 있다.²²⁾ 그리하여 「취경시화」가 불교적 종교색

21) (行者云)你道我不省得《金剛經》?我也常聽師父念:過去心不可得,未來心不可得,見在心不可得.怎的我不省得?你且賣一百文胡餅來,我點了心呵,慢慢和你說經。(貧婆云)這胡孫,在我家行賣弄他鐵嘴鐵舌.你說道要點心,却是點你那過去心也,見在心也,未來心也?(行者云)這婆子倒利害。(貧婆云)心乃性之體,性乃心之用.或有亦或舞,只看動不動.你答來我問:你有心也無?(行者云)我原有心來,屁眼寬阿掉了也. 隋樹森編,『元曲選外編』第2冊,中華書局,1987,654쪽.

22) 최한용, 「「서유기」에 나타난 神佛들에 대한 비판」, 『중국어문학논집』 제58호, 2009.

채로 충만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잡극「서유기」에는 희극적 오락색채로 충만되어 있다.

잡극「서유기」중 범사와 손오공의 인물형상이 「취경시화」 중의 범사 및 후행자와는 달리 더욱 세속화되고 희극성이 풍부한 인물로 큰 변화를 일으킨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취경시화」와 잡극「서유기」가 형성된 시대 배경에서 기인하니, 잡극「서유기」가 형성된 원말 명초에는 유교·불교·도교가 서로 융합하던 소위 삼교합일의 사조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잡극「서유기」중의 범사는 승려이면서도 극 중에서 ‘報皇恩’ ‘保國祚’를 강조하여, 겉은 불교이지만 내면은 書生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둘째, 잡극「서유기」의 작자 양경현이 활동했던 동남해안 지역의 사상 풍조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례로 陳建華는 원말 명초 중국 동남 해안 지역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문예부흥 정신과 비슷한 개성해방 사조가 성행하였으며, 그곳에 살았던 양경현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 잡극「서유기」에 반영되었다고 여긴다.²³⁾ 셋째는 양경현이 공연문학인 잡극의 문학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의 무대성을 중시하고, 그로 인하여 오락성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만일 잡극「서유기」가 서유고사를 제재로 희곡사상 처음으로 무대에서 공연된 희곡 작품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잡극「서유기」의 풍부한 희극성은 무대효과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경현 본인이 ‘비파를 잘 타고 희롱거리기를 좋아했다(善琵琶, 好戲謔)’는 기록이²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잡극「서유기」에 희극적 오락성이 충만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3. 결론

「취경시화」는 남송 무명씨의 소설로서, 역사적 실존인물인 玄奘의 서천취경을 제재로 하고 있고, 그 중에는 각종 신화와 민간전설이 들어있어 낭만적 색채로 충

23) 陳建華, 「元末東南沿海城市文化特徵初探」, 復旦學報, 1998年 1期.

24) 鍾嗣成, 賈仲明 著, 『新校錄鬼簿正續編』, 巴蜀書社, 1996, 165쪽.

만되어 있으며, 여러 妖魔 등이 등장하여 神魔小說인 오승은 「서유기」의 雛形을 보여준다.

「취경시화」 중의 주인공인 법사는 경건하고 덕행이 출중한 승려로 묘사되어 서천취경의 임무를 달성한다. 법사의 이와 같은 인물형상은 여인국에서 여왕에게 성적 유혹을 당하지만 유혹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분명히 드러났으며, 아울러 천축국에 도착하여 福仙寺에서 경건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불경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확연히 나타났다.

그러나 「취경시화」 중 법사의 인물형상에는 이러한 경건한 승려의 모습과는 어긋나는 모습이 보여진다. 곧 법사는 서왕모의 瑤池에 도착하여 후행자에게 반도 복숭아를 훔쳐 오도록 시킨다. 불교의 계율에 의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五戒 중의 하나로서 절대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香山寺에 도착해서는 寺門의 양쪽에 있는 金剛力士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하여 온 몸에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승려라기보다는 마치 市井의 俗人과도 같은 모습이다.

이와 같이 「취경시화」 중 법사의 인물형상에 경건함과 함께 세속적 희극성이 함께 나타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일정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첫째, 당나라 이후 불교는 점점 세속화 되었는데, 「취경시화」는 불교의 세속화가 심화된 남송 시기에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취경시화」는 당나라 시기 승려들이 일반 대중의居士들에게 불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俗講을 계승한 說經類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곧 설경류의 작품인 「취경시화」는 당시 일반 청중들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종교 교화에 희극적 오락성을 가미하여 자신들의 생명력을 유지해야 했다.

「취경시화」 중의 후행자는 후세 손오공의 추형으로 비교적 단순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문질빈빈한 白衣秀才의 형상으로 출현하여 詩를 짓기도 하며, 법사의 서천취경을 자발적으로 도운다. 또한 작품 중에서 후행자는 세 번의 재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영웅적인 신통력을 발휘한다.

잡극 「서유기」 중의 법사는 출생 내력에 있어서 독특함을 보여 江流故事와 결합되어 神話化되고 영웅화 된다. 그러나 극 중 초반에서 신화화된 법사는 시골

촌부인 반고아가 插科打諢을 사용하여 노래함으로써 곧 바로 조롱의 대상으로 바뀐다. 또한 법사는 극 중妖怪를 식별하지 못해 요괴에게 잡혀 가는 등 무능함을 드러내 凡僧으로서의 희극성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잡극 「서유기」에 나타난 법사의 희극성은 「취경시화」 중 법사의 희극성보다 훨씬 강렬하다.

잡극 「서유기」 중 손오공은 후행자의 모습과는 판이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는 바닷물과 강물을 뒤집어 버리는 엄청난神通력을 갖추었고, 문질빈빈한 후행자와는 달리 남의 여자를 탈취하여 아내로 삼는 등 오욕칠정을 지닌 세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天宮의 질서에 도전하여 仙丹과 仙衣를 훔치는 등 반항정신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후세 오승은 「서유기」 중의 손오공 형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었다. 또한 잡극 「서유기」 중의 손오공은 妖怪性を 버리지 않아 법사를 먹으려고 했으며, 火焰山을 지날 때에는 칠선공주에게 비속하고 무례한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극 중 그는 천축국에 도착하여 불교 교의에 뛰어난 貧婆와의 대화 중 插科打諢을 사용하여 『金剛經』에 나타난 불교의 교의를 조롱하기도 하였다.

잡극 「서유기」 중 법사와 손오공의 인물형상은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모두 「취경시화」 중의 인물형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오승은의 「서유기」를 성립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예술 풍격에 있어서도 잡극 「서유기」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취경시화」를 희극적 오락색채가 충만한 작품으로 변화시켜, 오승은 「서유기」가 희극적 색채로 충만토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잡극 「서유기」에 이렇게 희극적 색채가 충만한 것은 일정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먼저 잡극 「서유기」는 삼교합일이 주류인 원말 청초에 성립되어 강한 세속성을 지녔으며, 잡극 「서유기」의 작자 양경현이 활동했던 동남 해안 지역에 개성해방의 문예사조가 흥성했던 것도 시대 배경이 되었다. 또한 양경현이 성격적으로 희롱거리를 좋아하여 희극성이 넘친 오락적 무대효과를 중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잡극 「서유기」는 희곡사상 서천취경을 제재로 한 작품 중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공연된 작품인 것이다.

〈參考文獻〉

- 李時人 蔡鏡浩 校注, 「大唐三藏取經詩話校注」, 中華書局, 1997.
- 서정희, 「『서유기』의 당삼장 연구」, 『중어중문학』 38집, 2006, 6.
- 박춘영, 「서유기의 성서과정과 주요 인물형상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노신, 『중국소설사략』, 조관희 역주, 살림출판사, 1998.
- 蕭相愷 著, 『宋元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7.
- 毛小雨, 「雜劇西遊記研究」, 『雲南藝術學院學報』, 2004.
- 田華, 「論『西遊記』雜劇在西遊題材作品中的地位」, 內蒙古民族大學 碩士學位, 2011.
- 馬冀, 「論雜劇『西遊記』的人物形象」, 『內蒙古社會科學』 第22卷, 6期, 2001.
- 王振星, 「唐僧江流兒身世的原型與流變」, 『南通大學學報』 23卷, 2期, 2007.
- 鄭傳寅, 「論元雜劇中的佛教劇」, 『武漢大學學報』 제66권 제1기, 2013년.
- 涂秀虹著, 『元明小說戲曲關係研究』, 上海三聯書店, 2004..
- 鐘嗣成, 賈仲明著, 『新校錄鬼簿正續編』, 巴蜀書社, 1996.
- 毛小雨, 「元雜劇中佛教戲研究」, 『戲曲研究』 第31輯, 文化藝術出版社, 1989.
- 楊毅, 『宗教與戲劇的文化交融』, 福建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 朱莎, 「論元雜劇中佛教世俗化現象及原因」 『襄攀學院學報』 제33권 4기, 2012년.
- 嚴蘭紳 主編, 『元曲論集』, 河北出版社, 1993.
- 隋樹森編, 『元曲選外編』 第2冊, 中華書局, 1987.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n 『Poetry of Datang San Zang Sutra』 And 『Journey to the West』 drama of Yuan Zaju
- About Image of Character of Samzang Buddhist Monk and Sun Wukong

Kim, Kwang-Young

At 7 century XuanZang went to the west to bring Buddihist scripture to the china. 『Poetry of Datang and Zang Sutra』 and Yuan Zaju 『Journey to the West』 was created

at these foudation.

In 「Poetry of Datang San Zang Sutra」 San Zang Buddhist monk is reverent monk,

In this work San Zang Buddhist monk have comic character. This is the result of of secularization of Buddhism. Another character Monkey pilgrim have supernatural power.

San Zang Buddhist monk is hero in Yuan Zaju 「Journey to the West」. In this drama San Zang Buddhist monk play double roles. One is mythical and heroic character. The other is humouros and common chatacter. Becasse of this the emage of San Zang Buddhist monkis fulfilled with myth and hero.

On the other hand in this drama San Zang Buddhist monk has humouros and common chatacter. In this drama one common country woman sneer San Zang Buddhist monk. Also San Zang Buddhist monk way to the west is kidnaped by monster. In this point San Zang Buddhist monkis an incompetent man.

In this drama Sun Wukong plays double roles. Double roles conflict each other. which element produced these opposed two characters? This is antinomy. Unity of Three Religion is significant element. At that time Unity of Three Religion is general tendency. Yuan Zaju 「Journey to the West」 is influenced by the Unity of Three Religion. Addedly the writer of Yuan Zaju 「Journey to the West」 concerned in stage effct.

Key words: 「Poetry of Datang San Zang Sutra」 「Journey to the West」 drama, Unity of Three Religion, XuanZang, mythical and heroic character, humorous and common character, Sun Wukong

이 논문은 2019년 1월 11일에 접수되어 2019년 2월 12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2월 1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